

# Dubai유, 34.51달러로 상승

석유공사, 이라크 석유수출 의구심 ... WTI는 38.67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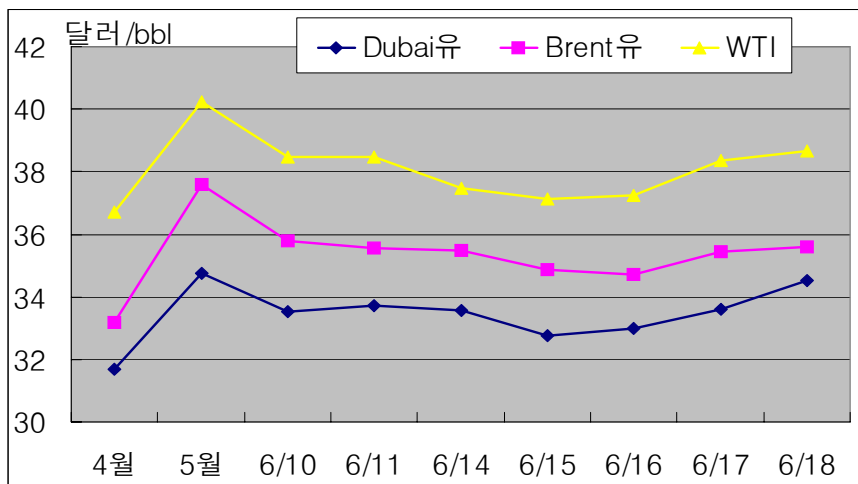
국제유가가 3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18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90달러 상승한 배럴당 34.51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0.30달러 오른 38.67달러로 거래가 마감됐다.

북해산 Brent유도 35.59달러로 전날보다 0.16달러 상승했다.

뉴욕상품시장(NYMEX)에서 거래된 WTI 7월물 선물가격은 전날보다 0.29달러 오른 38.75달러에 거래됐고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북해산 Brent유는 전날과 동일한 36.2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이라크 석유 수출 시설 조기복구에 대한 의구심과 노르웨이 석유 근로자 파업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6/21>